

칼람 인도 대통령을 위한 만찬사

존경하는 압둘 칼람 대통령 각하,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저녁 인도 국가원수로는 처음 방한하신 대통령 각하를 모시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온 국민과 더불어 각하와 일행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지금도 재작년 인도 방문의 감동이 생생합니다. 인류문명을 이끌어 온 인도가 다시 한번 세계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인도가 금세기 중반에는 세계 3대 경제대국이 될 것이라는 예측은 더 이상 새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난달 '다보스포럼'에서도 참가자들은 인도와 중국이 세계 경제의 판도를 바꾸고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인도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기술과 지식기반산업을 토대로 연간 7%가 넘는 고도성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도 지도국가로서의 위상을 한층 높여 가고 있습니다.

각하께서 큰 관심을 갖고 계신 과학기술과 인재 육성, 그리고 소외계층 지원은

이러한 인도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년 전에는 각하의 자서전 「불의 날개」가 우리나라에서 출간되기도 했습니다. ‘강한 인도, 부국 인도’를 만들어 가고 있는 인도 국민의 저력과 각하의 통찰력에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대통령 각하,

저의 인도 방문에 이은 각하의 이번 방한은 양국관계를 더욱 활성화하는 전기가 될 것입니다.

특히 이번에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의 협상 개시를 선언한 것은 그 의미가 매우 큽니다. 최근 빠르게 늘고 있는 양국 간 교역을 오는 2008년까지 100억 달러 규모로 확대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오늘 개정된 ‘과학기술협력협정’도 양국 간 협력을 한층 강화하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두 나라 간 인적 교류가 지난해 7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금 서울에서 열리고 있는 ‘인도불교미술전’과 같은 문화 교류와 올해부터 본격 추진될 청소년 교류 사업도 이러한 우호친선 관계를 더욱 증진시키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 두 나라는 EAS(동아시아정상회의), ARF(아세안지역안보포럼), 유엔과 같은 국제무대에서도 더욱 긴밀히 협력해서 명실상부한 동반자 관계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일찍이 인도의 시성 타고르는 우리나라를 ‘동방의 등불’에 비유하며 우리에게 큰 힘을 주었습니다. 이제 인도야말로 세계를 비추는 동방의 등불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대통령 각하의 건강과 인도의 무궁한 발전, 그리고 우리 양국의 영원한 우의를 위한 축배를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